

## 우리나라 첫 현대적 의학자

# 오공선 (吳兢善 1878~1963년)

朴 星 來 <한국의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의사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식영(池錫永·1855~1935년)일 것이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그는 정식으로 의사 자격을 얻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국가가 세워지면서 의사는 정식 교육과 훈련을 거쳐 자격을 얻어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라면 첫 의사 자격을 얻은 인물로는 미국에서 1892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서재필(徐載弼·1866~1951년)을 꼽아야 할 것 같다.

### 우리나라 첫 피부과 전문의

지석영은 우두의 도입자로 유명하고, 서재필은 의사로 보다는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개화기의 대표적 인사다. 그리고 1900년부터는 일본에서 교육받고 정식 의사 자격을 얻은 조선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1909년 미국에서 세번째로 의사가 되어 귀국한 인물이 오공선(吳兢善·1878~1963년)이다. 본격적인 의사 또는 현대적인 의학자로 꼽힐 수 있는 대표적 인물은 바로 오공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귀국 후 오랜 일생 동안을 의학자 및 교육자로 일관했고, 수많은 의학도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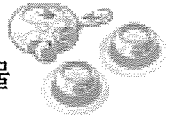
대 의료제도가 확립된 다음 오공선은 조선인으로서 의사 면허 제1호를 얻기도 했다. 또 그는 우리 의학사에서 첫 전문의(피부과)로도 꼽힐 수 있다. 지금은 의사라면 모두 전문 분야를 나눠 말하게 되었지만, 물론 개화기와 일제 식민지 초기에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 없었다. 처음 이 땅에 들어와 현대 의학을 실시한 서양 의사들은 치과의사마저 따로 없던 시절 치과까지 겸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충남 공주(公州)에서 1875년 10월 4일 태어난 오공선은 본관이 해주(海州), 호를 해관(海觀)이라 했다. 사곡면 운암리에서 감찰 벼슬을 지낸 오인묵(吳仁默)과 한산 이씨 사이에 1남 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장남이라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어려서 죽은 여러 형제·자매들도 있었다니, 여러 자녀를 일찍 잃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었던 모양이다. 당연히 대단히 귀한 자식으로 키워졌다. 10살 때에는 이미 「동몽선습」, 「통감」을 공부했고, 12살 이후에는 이미 한시를 쓰기 시작했더니, 당시로서는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동양 고전을 읽고 또 옛 성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 것도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14살에는 밀양 박씨와 결혼, 18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서 그는 바로 신학문을 배우려고 배재학당에 입학했고, 협성회 간부가 되어 「협성회보」를 시작하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또 1898년에는 독립협회 간사가 되기도 했다. 그가 신학문을 시작하면서 그는 스스로 상투를 잘라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이렇게 신학문과 개화운동에 참여하던 청년 오공선은 1899년 독립협회와 그 모임이 주최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만민공동회가 조선 왕조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면서 시골로 피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고향으로 내려간 그는 공주 침례교 선교사 스테드만의 집에서 2년 동안 숨어살면서 점점 더 기독교에 기울게 되었다. 또 이 기간 동안 그는 선교사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면서 그로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1900년 금강에 나가 스테드만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그의 일생의 기독교 생활은 확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스테드만은 강경(江景)으로 옮겨 선교사업을 계속했는데, 그와 함께 갔던 오공선은 거기서 역시 미국 선교사 알렉산더와 친하게 되었다. 스테드만이 일본으로 떠나면서 그를 알렉산더에게



오공선은 방에 ‘돈을 사랑함은 악의 뿌리’라는 성경구절을 적어놓고  
자식들에게도 의사가 개인병원을 열어 돈을 버는 일을 경계했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들도 대학이나 정부 병원에서 일했다.

소개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바로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공선이 미국에 유학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알렉산더의 후원으로 그는 1902년 미국에 건너가 센트럴대학 교양학부를 수료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가 된 것은 1907년의 일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그는 한국인 남자로는 최초의 미국 의사가 된 것이었다. 1900년에 여자로서는 김점동(金點童 또는 남편 성을 따라朴에스터)이 처음 의사가 되었고, 그보다 앞서 서재필이 미국 의대를 졸업했지만 서재필은 미국인이었다.

그가 뒤에 피부과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 것은 바로 1907년 루이빌시립병원 인턴으로 들어가 6개월간 피부과에 근무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또 그는 서재필과는 달리 분명한 조선 국적이었지만, 의사가 되어 1907년 10월 귀국할 때에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한국과전 선교사 자격을 얻어 귀국했다고 되어 있다. 그는 조선인이지만, 미국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전라북도 군산 야소병원장에 취임하여 본격적인 의료봉사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1909년 그는 군산에 영명중

학교(永明中學校)를 설립하여 교장직을 맡아가며 청소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구암교회도 설립하였다. 1910년 봄 군산을 떠나 전라남도 광주로 가서 광주야소교병원장에 취임하고, 1911년에는 목포야소교병원장, 목포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 교장직도 겸임하였다. 그가 초기 기독교 선교사업과 관련되어 활동하게 된 것은 그가 미국 유학을 선교사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 세브란스의 첫 조선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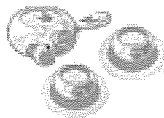
오공선은 1912년 서울로 올라오는데, 남장로회 선교부 대표 자격으로 세브란스의학교 조교수 겸 진료의사로 취임했다. 의학교의 첫 조선인 교수가 된 것이었다. 1916년 4월부터 1년간 일본 동경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피부비뇨기과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1917년 5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피부과를 신설하여 과장 겸 주임교수가 되었다. 또 1930년 2월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피부과학을 연구했으니,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에서 피부과를 연구한 당대로서는 조선에는 아주 드문 경력을 가진 의학자,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34년 4월 세브란스의학전문

학교 제2대 교장에 취임했다. 에비슨의 뒤를 이어 조선 사람으로는 첫 세브란스 교장이 된 것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그는 1942년 6월 65세 정년제를 제정하여 스스로 교장직을 사임하고 명예교장이 되었다. 그는 일생을 가장 본인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았던 인물임이 분명하다.

오공선은 그의 안방에 액자 하나를 걸어 두었는데, 거기에는 조선은행권 지폐가 한장 붙어있고, 그 옆에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성경」(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을 적어 넣었다. 자식들에게 의사가 개인병원을 열어 돈을 버는 일을 경계했기 때문에 그 아들과 손자들이 의사는 많지만, 거의 다 개업하지 않고 대학 병원이나 정부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 오한영(吳漢泳·1898~1952년)은 세브란스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에 유학한 내과 의사로 세브란스 교수가 되었다. 해방 후 경찰병원 원장을 거쳐 보건부장관을 지내다가 건강을 해쳐 물러나 바로 서거했다. 55살에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것이다. 차남 오진영(吳震泳·1911~)은 경성제대 사학과를 거쳐 법학과로 재입학하여 홍익대 교수



가 된 법제사(法制史) 학자였다.

### 보육원 설립 고아들 돌봐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도 엄격한 인품이었지만, 대단히 유모어가 많은 즐거운 사람이기도 했다. 하루는 외손녀가 “왜 서양 사람들은 털이 많으냐?”고 묻자 “그러기에 서양 사람들을 <전(全)털맨>이라 하지 않더냐?”고 대답했다. ‘첸틀맨’이란 영어를 이용한 피부과 의사의 조크였다. 또 그는 대단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어느 틀에 얽매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적당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그런 기독교도였던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또 그는 당시의 교육

받은 다른 선구자들과는 달리 나이가 6살이나 많았고, 마마를 앓다가 얼굴을 엮은 아내와 평생을 해로했고, 자식들에게도 이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1918년에 이미 보육원을 시작하여 고아들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1962년 11월 그는 새싹회의 ‘소파상’ (小波賞)을 받았는데, 바로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한 평생의 봉사가 인정받게 되었던 때문이다. 그는 세브란스를 자진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더욱 열심히 보육원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보육원은 지금도 안양에 남아 있다. 1963년 5월 18일 86세를 일기로 오궁선이 서거하자, 많은 사람

들이 그를 추모했다. 정부로부터 훈장이 추증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연세대학교는 그를 여러 가지로 기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도 하다. 1977년 이래 ‘해관 오궁선선생 기념 학술강연회’를 해마다 9월 말~10월 초쯤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학교 안에는 동상과 흉상이 세워져 있다. 물론 오궁선은 세계 의학계에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해 보고한 일은 없다. 그는 아무 것도 창조적 업적을 인류에게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의학사에서 여러 가지로 첫번째인 그런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만으로도 그는 우리 역사에 남는 대표적인 의학자로 꼽혀 마땅할 것이다. ④7

과학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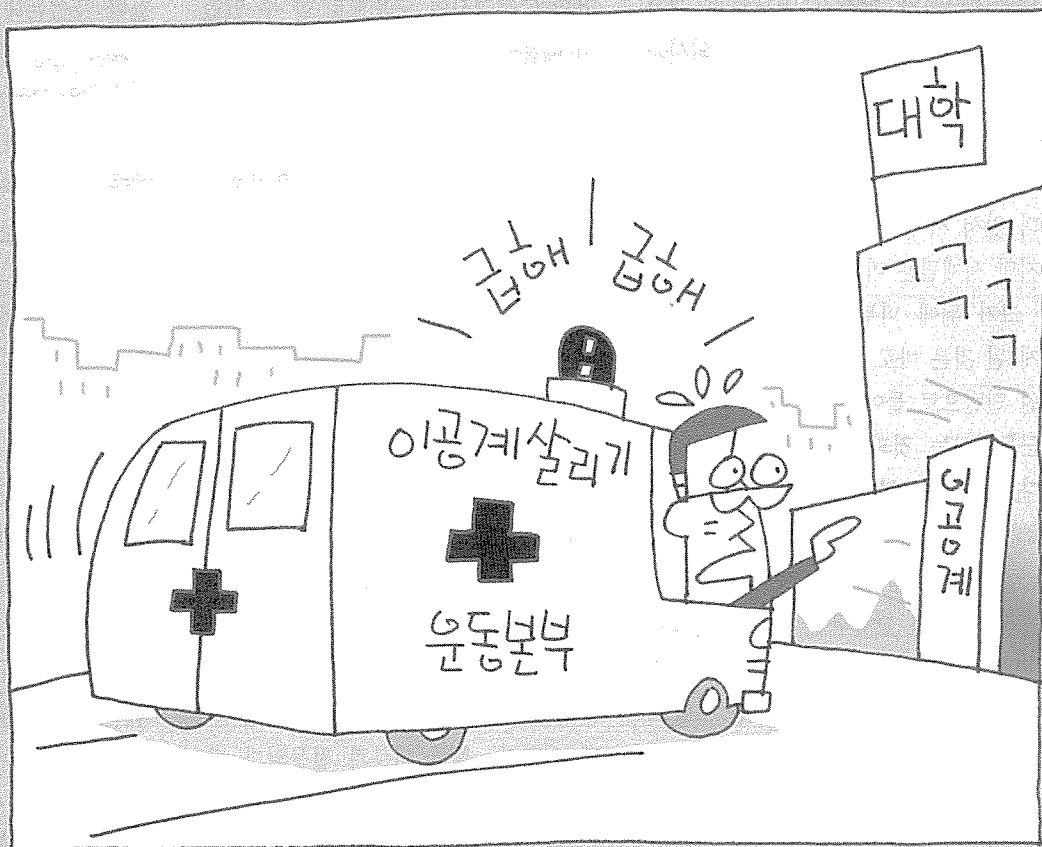


그림 : 崔民